이번엔 '공놀이'…서울불교박람회 대박 예감

4월 2~5일 코엑스 B홀에서
'꼿' 뽑고, 뒤집고, 완성하는
MZ 겨냥 참여 콘텐츠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약 2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불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올해는 '공(空)'을 직접 뽑고, 쓰고,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열리는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인 '공(空)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불교 콘텐츠를 선보인다. 참여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프로그램은 '공(空) 뽑기' 체험이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코인을 활용해 무작위로 공을 뽑고, 공 안에 담긴 메시지에 따라 미션을 수행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공에는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공 질문지' △'공(空)'을 뒤집으면 '운(運)'이 드러나는 메시지 카드 '행운지' △'행운의 전당'에 마련된 '행운 전달자'의 사인볼로 교환 가능한 '행운의 공 당첨지' 등 세 가지 유형이 담겨 있다.

'공(空) 질문지'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현장에서 스님과 문답을 나누며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의 답을 찾고, 정답을 확인한 뒤 '가피박스'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사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다. 주최 측은 "전통적인 수행 문화를 현대적인 체험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스님과 젊은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이는 '공놀이' 이벤트 부스 조감도.

'공(空) 수거' 프로그램은 전시장에서 뽑은 공(球)을 행사장 내 또는 인근 봉은사에 마련된 조형물에 다시 봉안(奉安)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다. 참여자는 자신의 서원과 마음을 담아 공을 완성하고, 이를 설치물에 더함으로써 개인의 염원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상징적 조형물로 완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설치물은 사찰 경내를 아름답게 채우는 공공미술 작품으로 자리하며, 참여자 개개인의 마음이 모여 공동체적 의미를 확장하는 ESG형 체험이다. 환경과 공동체, 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프로그램은 현대적 방식으로 불교의 공(空)사상과 지속가능한 가치 실천을 연결하는 특별한 시도다.

'공(空) 뽑기' 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인 '행운의 전당'은 스님을 비롯해 연예·체육계 인사, 인플루언서 등이 '행운 전달자'로 참여하는 특별 전시다. 이들은 직접 작성한 행운의 메시지와 자필 사인이 담긴 '행운공'을 기부해 관람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한다. 각 행운 메시지에는 인생의 좌우명, 마음에 남는 한 문장, 혹은 삶을 지탱했던 명언이 담겨 있어, 이를 받은 이에게 또 다른 '행운'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올해 포스터와 전시 디자인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空)'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구조, 울림, 파동의 이미지를 확장해 구현했다. 원형의 반복과 흐름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 구조를 공간 전반에 적용해 관람객이 전시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의 개념을 체감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포스터와 전시 그래픽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등 〈반야심경〉의 구절을 시각 요소로 활용해 경전이 담고 있는 깊은 철학적 의미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했다.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은 이러한 시각적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관람객의 디자인부터 현장 이벤트까지 완성형 경험으로 체감하도록 구성됐다.

조계종은 "이번 전시는 공(空)사상을 처음 접하는 관람객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설명 중심이 아닌 체험 중심의 구성으로, 관람객이 직접 공을 뽑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불교철학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6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담마토크', '야단법석', '릴랙스위크', '국제선명상대회' 등 연계 프로그램과 함께 '불교의 달'을 여는 4월의 첫 번째 행사로 운영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구신도회 활성화' 간담회

3월 12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서
'내실 다지며 조직 강화' 강조
진우 스님 "불교 중흥에 주춧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 이하 중신회)가 3월 12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중앙신도회장 초청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3월 12일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우 스님을 비롯해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가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신도회 활동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 스님, 중앙신도회 회장단 및 교구신도회 임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충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기조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불교 중흥에 큰 주춧돌 역할을 신도회가 하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정원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6년을 '내실을 다지는 조직 강화의 해'라고 명명하고 "교구와 사찰, 신도조직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신도회가 종단을 대표하는 신도조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구본사와 교구신도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스님들의 가르침과 신도회장들의 지혜를 모아 중앙과 교구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용식 사무총장은 '중앙신도회 조직강화 사업 공유'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중신회 존립 근거와 역사, 현재,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정 사무총장은 "힘한 불교, 디지털 시대라는 현대적 흐름 속에서 재가불자들의 역할 변화 선도와 사회적 실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디지털 시대 도약을 위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신한은행과 신도증 체크카드 출시

3월 11일, 전략적 협업 업무협약
진우 스님 "도움되는 상품" 강조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손잡고 신도증 겸용 체크 카드를 발급한다. 1994년부터 운영돼 온 신도등록 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신도들의 신행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은 3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신한은행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신도등록 제도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도 멤버십 혜택 확대, 종단교무금 납부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신도증 겸용 전용 카드 발급 및 활성화 △신도 관리를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신행 생활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신도증 겸용 체크카드 출시와 종단 신도를 위한 전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신도 관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신도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지난해 총무원 화재복구기금을 기부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함께 마음 모아준 덕분에 복구가 잘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협약을 통해 신도증 발급과 디지털 포교 활동에 신한은행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임은호 기자

"1366 상담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민노총, 3월 12일 조계사서 집회
조계종복지재단에 문제 개선 촉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3월 12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에 서울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이하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근로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사진〉 1366 서울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다.

이날 이들은 재단에 △고용불안 해소 △교대근무제 개선 △인권침해 문제 해결 △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 보장 △계속되는 인력공백 해결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했다.

특히 고용불안 해소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탁기간 동안 고용유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비민주적인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 노동자를 1년마다 반복 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인력공백으로 인한 살인적인 교대근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재단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운영규칙에 따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노동자들이 말하는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소통이 먼저"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